

여수시, 9일 선천성 심장질환 무료 진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의료진이 오는 9일 여수시 보건소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자 무료 진료에 나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연세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지난 2006년 여수시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짝수 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진료대상은 선천적인 심장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의료진

시 보건소서...심장질환 의심 영유아·소아

소아다.

의료진은 1차적으로 시 보건소에서 심전도·초음파검사 등을 한 후 선천성 심장 질환자로 판명되거나 의심될 경우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

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사랑나눔회와 한국심장재단에서 수술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 10월까지 진료를 받은 144명 중 41명이 763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받았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 보건행정과(061-659-4219)로 예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세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의 방문 진료로 지역 아동들이 전문병원 방문 부담을 덜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문화관광

해설가 능력 평가

진도군이 문화관광해설가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 해설 능력 평가를 개최했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의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 철마도서관 시청각실에서 '2017 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 해설 능력 평가'를 열었다.

이번 평가 대회는 현재 진도군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가 12명이 참여해 진도군 문화·관광지의 전문지식 묻는 필기시험과 함께 현장해설 시연평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김모씨(진도군 문화관광해설가)는 "능력 평가 대회를 통해 상호 해설 기법을 공유하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관광 해설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진도군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한 해설 능력 평가를 통해 문화관광지원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습득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해설 능력 평가 이외에도 문화관광해설 표준 매뉴얼 작성, 문화관광 선진지 견학 등 품격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문화관광지원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친절한 이미지 등으로 품격 높은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진도=소상용 기자

여수시, CNG 자동차 내압용기검사장 개소

신월동 공영차고지 내...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

사업비 2억원 투입 지난 6월 착공해 11월 준공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여수 시내버스와 환경미화차량이 내압용기 검사를 위해 인근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동차 내압용기검사장 여수출장소가 신월동 공영차고지에서 개소했다.

압축천연가스 사용 차량의 내압용기(재)검사는 지난 2010년 서울 행당동 압축천연가스버스 파열사고

를 계기로 2011년 도입됐다.

이후 압축천연가스 이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수지역 차량들은 지역 내 검사소가 없는 관계로 인근 순천 검사장 등을 이용해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검사장 조성에 들어가 지난달 준공했다.

검사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분부는 앞으로 여수시에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며 검사소를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장 개소로 압축천연가스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과 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압축천연가스 차량은 시내버스 180여 대, 환경미화차량 50여 대 등 총 230여 대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하세요"

출생·출산지원금·양육수당 등 한번에 신청 가능

장흥군은 이번달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 개시에 따른 것으로 자녀 출생 신고 뒤 출산지원금, 자녀양육수당, 다

자녀공공서비스 감면 등 공공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번번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손쉽게 신

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뒤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 문의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860-0564)로 하면 된다.

장흥=김종민 기자



장흥군, 낙농 2세대 청년 수제 치즈 제조에 도전장

장흥군 낙농 2세대 청년이 수제 치즈와 요구르트 제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장흥읍 성불리 길목장의 정찬섭(남, 41세)이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인천시 인하대학교 생물공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아내 김유진(여, 37세) 씨와 장흥에 귀농한 2세대 젊은 낙농인이다.

아들 부부는 젖소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활용해 치즈, 요구르트, 버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목장형 유기농 상품화 시범사

판매하는 유제품은 쿼터량 납품 이외의 남은 우유를 활용해 만든 수제 요구르트와 구워먹는 할무치즈, 생치즈, 숙성치즈 등이다.

쿼터량 외 남은 우유는 보통 kg당 100 ~ 300원 수준에 판매되지만 이 우유를 이용해 수제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어 판매하면 kg당 각 5천원과 7천원에 판매할 수 있다.

최소 10배 이상의 소득 창출 효과가 있는 것.

정 씨 부부는 앞으로 건강한

인하대 생물공학 석사학위 받고 고향 내려 온 젊은 낙농인

2005년부터 각종 유기농 제조 교육...10월부터 유제품 생산

"건강한 우유 직접 생산·가공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 목표"

업'을 전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하고 맛있는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 정 씨 부부는 2005년부터 각종 교육과 실습에 매진해 왔다.

2012년 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유제품가공기사를 취득한 것이 그 첫 단추였다.

이어 순천대학교,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등에서 유기농 제조와 관련하여 100시간이 넘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이수했다.

정 씨는 올해 10월 장흥읍에 공방 겸 판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유제품 생산에 나섰다.

우유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유제품으로 가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풀을 먹인 젖소에서 나오는 '그라스 페드 밀크(Grass-Fed Milk)'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찬섭 씨는 "건강한 유제품을 생산해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유제품을 먹고 생산자는 제 값을 받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양삼

지역공공매장소 정문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